

Sweet Spot	
참여 작가	김가진 (Kajin Kim)
전시 기간	2026년 5월 7일 - 2026년 6월 13일 (오프닝 리셉션 : 5월 7일)
장소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층)
개관 시간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주최, 주관	핼 (FIM)

전시 내용

핼(FIM)은 2026년 5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Sweet Spot》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작가 김가진의 첫 국내 개인전으로, 빛과 투명한 물질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작업 10여점이 전시됩니다. 작가는 동시대 사회에서 기술, 미디어에 의해 사람이 매개되고 탈체화되는 감각과 접촉, 소통에 대한 사유를 담아냅니다. 동시에, 관계가 끝내 완결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더라도 그를 건디는 태도, 그리고 완전한 접촉 또는 겹쳐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으로의 이동을 보여줍니다.

전시 서문

핼은 2026년 5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김가진의 개인전 《Sweet Spot》을 선보인다. 본 전시는 작가의 첫 국내 개인전으로, 레진, 열성형 아크릴, 실리콘과 같은 투명한 물질과 비물질적 빛을 매개 삼아 기술과 미디어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감각과 존재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지속되는 관계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특히 투명한 재료는 단순한 지지체가 아니라 빛을 통과시키고 변형시키는 필터이자 렌즈로 작동하며, 이미지는 물질과 결합해 공간으로 확장된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된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 연결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두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더 이상 극복해야 할 결핍이라기보다 관계가 형성되는 하나의 조건으로 작동한다. 김가진의 작업은 바로 이 조건 위에서, 완전히 결속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서로를 향해 열려 있는 상태, 즉 '사이의 감각'을 탐색해왔다.

작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레진이나 투명 필름과 같은 물질 위로 옮겨오고, 빛이 이를 통과하는 구조를 통해 비물질적 이미지를 물리적 공간으로 이주시킨다. 이 과정에서 빛은

이미지를 단순히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굴절시키고 확장시키며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 그 결과 이미지는 하나의 고정된 표면에 머무르지 않고, 공간 속에서 중첩되거나 벽 위에 투사되며 유동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김가진의 작업 속 인물들은 서로를 향해 있지만 완전히 맞닿지 못하고, 신체는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수렴되지 못한 채 파편처럼 흩어지거나 겹쳐진다. 이러한 이미지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요소들이 시각적으로는 접촉하는 듯 보이도록 구성되며, 어긋남과 중첩의 상태를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 위에 있으면서도, 작가의 태도 변화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2025년 이전 작업에서 작가는 관계의 불안정성을 결핍으로 인식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접촉에 대한 욕구와 결속의 가능성을 탐구해왔다. 반면 최근의 작업에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벗어나야 할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끝내 사라지지 않는 감각을 붙잡는 데 더욱 주목한다. 관계가 완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는 상태,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가닿고자 하는 미세한 움직임이 작업의 중심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지에서도 드러난다. 이전 작업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던 신체의 경계는 점차 흐릿해지고, 인물들은 유령처럼 부유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Placeholder 시리즈는 빛을 통과한 이미지가 고정되지 않고 희미하게 떠오르는 상태를 통해 부재와 존재가 동시에 감각되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맞잡은 손, 타인의 몸에 기대듯 누운 사람과 그를 감싸 안은 손들, 엉키고 얽힌 몸들과 입 맞추는 사람의 옆모습. 이 인물들의 신체 사이 희미한 경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제한적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가닿고자 하는 관계의 감각을 암시한다. 한편 Habitable Dialogue 와 Embedded Embrace 시리즈 역시 기존 연작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접촉 이후 남는 흔적과 잔영, 그리고 완전히 결합되지 않은 관계의 상태를 더욱 강조한다.

전시 제목인 Sweet Spot 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집약한다. 일반적으로는 최적의 균형 상태를 의미하는 이 용어는, 여기서는 단절과 연결, 실재와 비물질, 신체성과 탈체화된 감각이 완전히 합쳐지지 않은 채 포개지는 지점을 가리킨다. 이는 기술과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불완전함과 불안정함을 품고 흔들리면서도 관계를 향한 욕구를 놓지 않고 서로를 감지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 불안정한 교차점이, 이 전시가 말하는 Sweet Spot 이다.

작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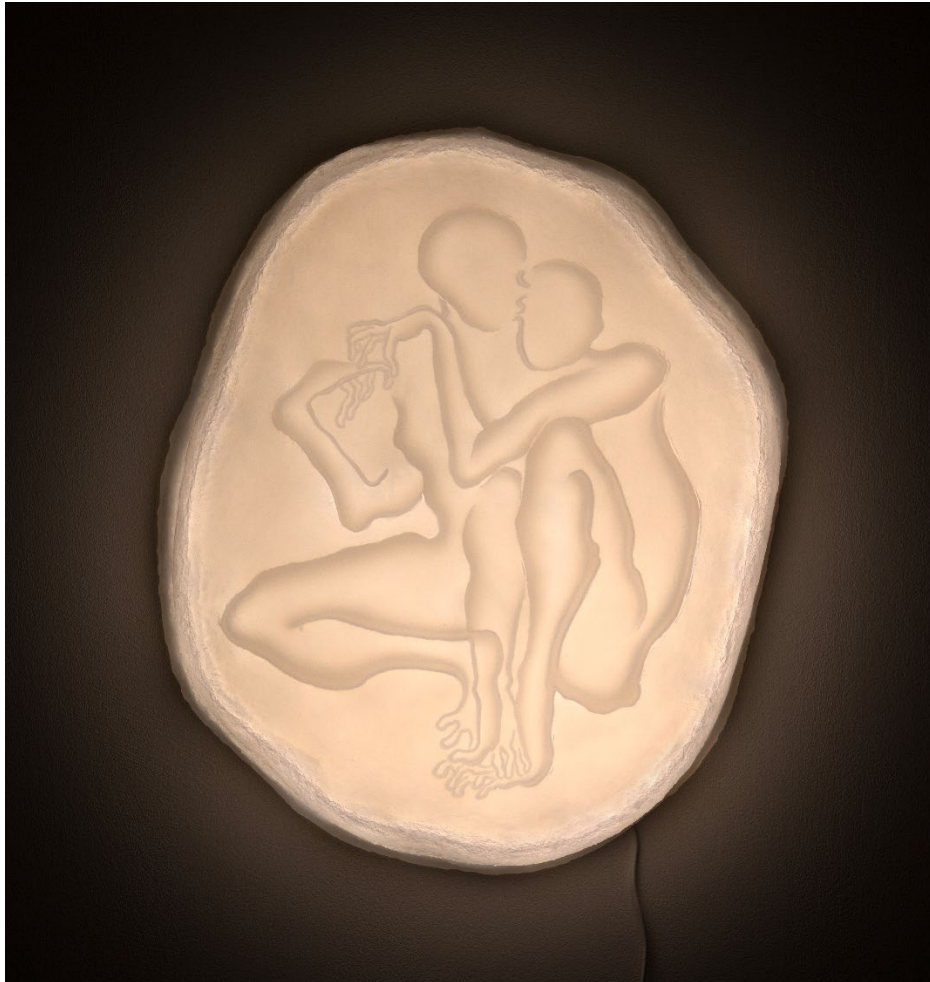
김가진은 투명한 물질과 빛을 매개로, 기술과 미디어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관계의 감각을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와 물리적 재료를 결합해 분리와 접촉이 교차하는 장면을 구성하며, 어긋남을 전제로 형성되는 관계의 상태를 시각화한다. 최근 작업에서는 완전한 접촉의 불가능성을 전제로, 그 불안정한 조건을 견디는 태도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작가의 작업은 흐려진 경계와 엷힌 신체를 통해,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감지하려는 감각을 드러낸다.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한 후 뉴욕 헌터칼리지 (Hunter College)에서 복합미디어 석사 과정 (Combined Media MFA)을 졸업했다. The Stroll Gallery (2024, 홍콩), Swivel Gallery (2022, 뉴욕)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탈영역우정국 (2026), 021 갤러리 (2024, 대구), 에브리데이몬데이 갤러리 (2023)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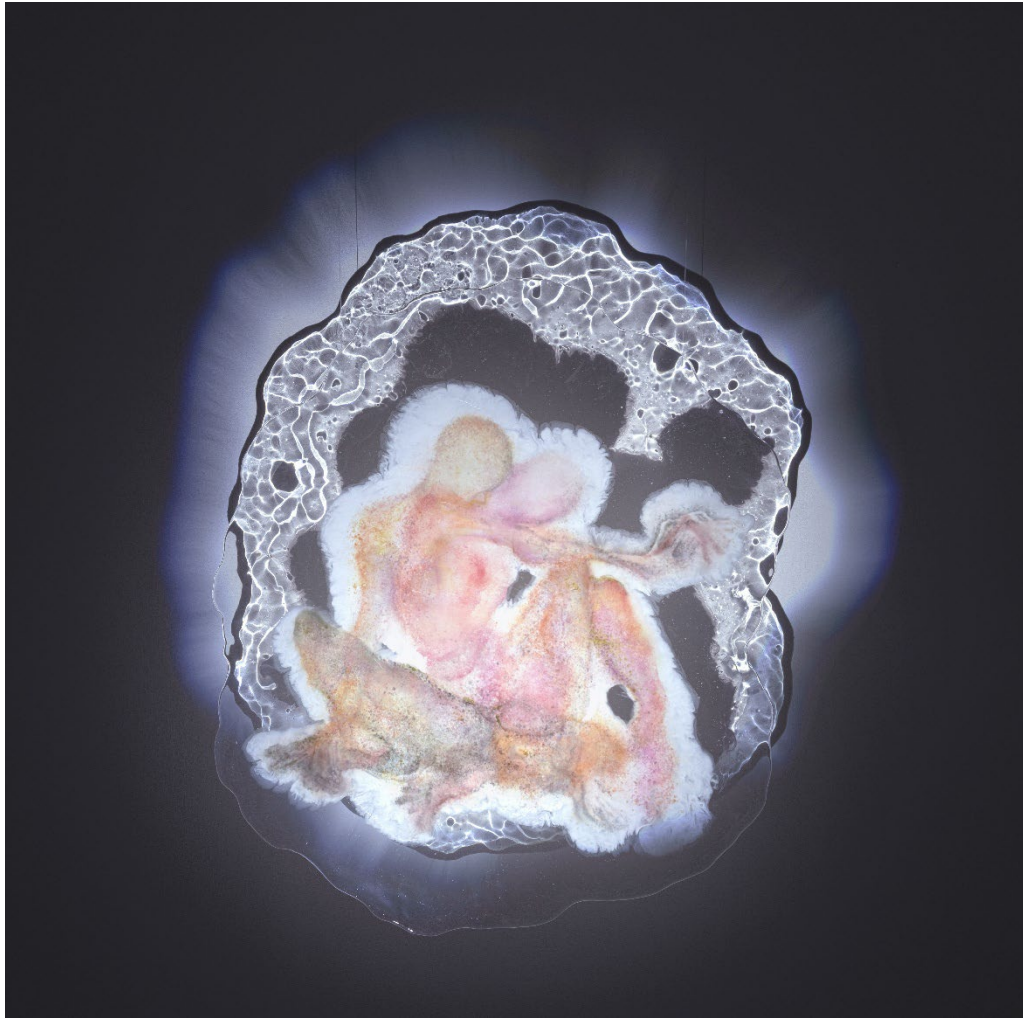
공간 소개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대표작 이미지



김가진, *Embedded Embrace VII*, Silicon, thermoformed acrylic, LED light, 2026, 52 x 44 x 17 cm
이미지제공 **FIM**



김가진, *Habitable Dialogue XVI*, Image transfer on epoxy resin, light, 2026, 93 x 85 x 0.3 cm
이미지제공 **FIM**



김가진, *Placeholder IV*, Print on transparent film, thermoformed acrylic, light, 2026, 38 x 40 x 12 cm
이미지제공 FIM